

연장입양아 가족의 부모-자녀 애착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Program to Improve Parent-Child Attachment in Families Adopting an Older Child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신혜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부교수 정익중

고려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부교수 민성혜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권지성

Department of Childhood, Seokyeong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Hyewon Shi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Ickjoong Chung

Department of Child Care, Cyber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Sunghye M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Associate Professor : Jisung Kwo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an attachment improvement program for families adopting an older child. The objectives and contents of this program reflected on the experiences of adopted par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older-age adoptee children with attachment disruption. The program consisted of three

Corresponding Author : Ickjoong Chung,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10-3592-9102 E-mail: ichung@ewha.ac.kr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2A-B00138).

components: parent-child relationship building, parenting skills enhancement for adopted parents, and negative emotions mediation for the older-age adoptees. The subjects of program were eight parent-child dyads.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test data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communication levels with parents, and the parents' autonomic levels. There was also a reduction in the children's social problem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roving parent-child attachments in families adopting an older child.

주제어(Key Words) : 입양(adoption), 연장입양(adopting an older child), 연장입양아(older-age adoptee), 애착(attachment), 부모-자녀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 애착증진프로그램(attachment improvement program)

I. 서론

국내입양에서 연장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연장입양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장입양이란 아동이 친생부모와 가족경험이 있거나 이미 성격의 많은 부분이 형성된 나이에 입양됨으로 신생아 입양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입양 형태로(고혜정, 2005), 한국입양홍보회에서는 생후 12개월 이상에 입양된 아동을 연장입양아동이라 정의하였다. 연장입양 아동들은 신생아 때 입양된 아동들에 비해 인지, 언어, 사회, 정서발달이 늦을 뿐 아니라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Tommie & Pauline, 2001). 이런 현상은 특히 연장입양아동이 입양 이전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아동 내면에 분노, 불안, 공격성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Hughes, 1999).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연장입양 아동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권지성(2004)은 연장 입양아동들에 대한 연구결과 입양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손실과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것이 불안정 애착이나 애착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입양부모도 입양과정을 '도전'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과정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연장입양 아동이라고 해서 모두 애착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애착을 형성해야 하는 신생아 시기 이후부터 영아기 애착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주 양육자가 바뀌었거나 주 양육자가 없었던 경우에는 대부분 애착에 문제가 나타나 부정적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구성하게 되므로(Atkinson, 1997) 이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내적 실행 모델이란 얼마나 애착대상이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안전기지 역할을 잘 수행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관계의 질이다(Bretherton & Munholland, 1999). 초기 상실의 경험으로 인해 애착에 문제가 있어 부정적 내적 실행 모델을 갖는 아동은 관계경험에서 무시나 불확실성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덜 지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기대를 가지게 되고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문제행동을 보이고 불안을 보이며 정서조절에 미숙한 현상을 보인다(Zimmermann, 1999).

이를 기초로 볼 때 초기 애착에 손상 가능성이 있는 연장 입양 아동들은 부정적 내적 실행 모델의 가능성이 높아 주변의 어떤 성인도 신뢰하지 못하고 다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상으로만 관계를 맺으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양한 부모에게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입양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험박하고 위협하고 분노 폭발을 하는 등의 반항적인 행동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Hughes, 1999). 또한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을 수치심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적절하지 못한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해 충동적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사회화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Hughes, 1999).

이는 보편적으로 주 양육자와 호혜적이고 즐거운 관계를 맺는 능력을 발달시킨 아동이 긍정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형성하여(신혜원, 2004)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경험하여 유능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과 아동 자신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위로 받으며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되고 정서조절능력, 행동 통제 능력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Lieberman, 1997)하게 되는 것과 비교된다. 이로 인해 연장이 입양 부모들은 사랑스럽던 아이가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에 당황하고 점점 지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가정의 해체 위기를 보고하였다(정익중, 권지성, 민성혜, 신혜원, 2010).

연장 입양아 부모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입양 부모들은 한결같이 연장 입양 아동의 특성과 적응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지난 시간을 좀 더 수월하게 적응하였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정익중 외, 2010). 연장입양 아동과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때 보다 안정적이나 그렇지 못하냐를 구별하는 요인은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의 매칭(matching)의 잘못일 수도 있고, 입양 부모의 적절하지 못한 양육이나 기대, 새로운 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는 아동의 행동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다도 애착 손상이 있을지도 모르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연장 입양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에게는 입양하게 된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알고, 이 아동이 새로운 부모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정보 그리고 양육기술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애착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애착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을 위한 접근과 교육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불안정 애착을 안정애착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보고되면서(전우경, 2002) 손상된 애착을 회복하고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애착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이고, 상호작용을 거쳐 적응이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는 특성이기에 실제적인 자녀양육 경험을 통해 서툴렀던 양육기술을 익히고, 자녀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감, 애정, 호기심, 호혜적인 관계의 의사소통방식 등을 시도하면서 점차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시작(Egeland & Farber, 1984)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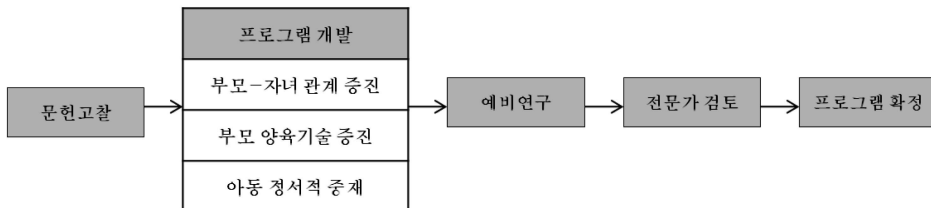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애착 증진 프로그램은 주로 부모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양육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우경(2002)도 영아 애착증진을 위해 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보고하였고, 성영혜(2002)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치료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결과 부모의 내적표상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부모의 민감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으며 이경숙(1996)은 애착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아동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애착표상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상호작용 형태와 내용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 연장입양아동 대상 증재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기초하여 애착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연장입양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애착증진 프로그램은 부모 개개인에 대한 프로그램과 연장입양 아동 개개인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상호관계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연장입양 아동-부모 애착증진 프로그램은 단순히 아동의 과거의

상처만을 치료하는 것과 달리 입양 전 아동의 경험과 이로 인한 아동 특성과 한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가족의 어려움 등에 대한 부모의 이해에 대한 도움 그리고 새롭게 가족이 된 부모와 아동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양육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애착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고 부모-자녀 관계 증진, 부모의 양육기술증진, 연장입양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의 증재 3가지 차원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효과를 연구하였다. 첫째,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증진되어 호혜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아동이 부모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 경험에 의해 생성되었던 부정적인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을 긍정적인 모델로 재 수정함을 목표로 하였고, 둘째, 부모의 양육기술 증진 프로그램은 부모가 애착에 손상이 있는 아동의 욕구, 감정,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 생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 기술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셋째, 연장 입양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 증재 프로그램은 아동 자신이 내적 감정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발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에 따라 부모-자녀 애착에 문제가 있는 아동의 특성과 애착증진을 위한 과정에 대한 문헌들(Hughes, 1999; Marvin, Cooper, Hoffman, & Powell, 2002; Shields, Ryan, & Cicchetti, 2001; Thomas, 2000)을 토대로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부모 양육기술 증진, 아동의 정서적 증재 차원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된 부모-아동 애착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절차, 시간, 내용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입양을 한 부모-자녀 2쌍을 대상으로 주2회씩 총 8회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하는 활동이 효과적이었고 이런 활동을 좀 더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가정에서 아동을 훈육하는 기법을 충분히 연습하고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주기를 주 1회씩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그림 1) 부모-자녀 애착증진 프로그램 개발 과정

또한 동화를 이용해 아동의 정서적 증재를 하는 경우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아 아동의 감정을 탐색하고 아동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아동학 관련 전문가 2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확정하였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입양기관에 부모자녀 애착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참여안내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각 입양기관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연장입양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대상자를 표집하기는 쉽지 않았고, 특히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연장입양대상을 표집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H 입양홍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초등학교 아동을 둔 연장입양 부모자녀 8쌍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이 시작되어 주 양육자와 주변 성인을 변별하는 생후 4주~6주(정옥분, 정순희, 황현주, 2009) 이후에 입양된 아동을 초기 상실 경험이 있는 아동으로 보아 생후 6주 이후에 입양된 아동들 중 부모가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대상 아동이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호소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7세부터 만 9세의 아동들이었으며 남아가 2명, 여아가 6명이었다. 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가정이었으며, 부모의 나이는 40~50대이었으며 부모의 학력은 대부분은 고학력이었다. 연구 대상 어머니와 자녀는 본인과 자녀의 비디오 및 설문자료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10회의 애착증진 프로그램에 매번 참여하는데 동의하였다.

2. 연구도구

1) 부모-자녀 애착관계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윤소영(2001)의 것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 6문항 총 3가지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감'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어머니께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어머니는 자신을 믿어주는 지 등을 묻는 문항이며 '의사소통'은 어머니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지에 관한 문항이다. '소외감'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또는 좌절에 관한 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인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 측정의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의사소통의 Cronbach' α 가 .87, 신뢰감이 .84, 소외감이 .75이었다.

2)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은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 분석하였다. 과제는 Erickson, Sroufe와 Egeland(1985)가 고안한 과제를 근거로 한 것이다.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였고, Erickson, Sroufe와 Egeland (1985)의 교수전략 평정척도(Teaching Strategies Rating Scale)를 이영과 나유미(1999)가 번안한 것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 행동 중 어머니 행동 특성 분석영역은 정서적 지지, 자녀 자율성 존중, 한계설정, 자녀에 대한 적개심, 과제 지시 적절성 그리고 자녀에 대한 확신"이고, 아동의 행동 특성 분석영역은 과제 수행 시 인내력, 과제에 대한 열정, 어머니 지시에 대한 순응성, 과제 수행 시 긍정성, 어머니 도움에 대한 의존성, 어머니와 공유하는 긍정적 정서 표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회피이다. 각 하위 항목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	성별	연령	입양당시 연령	입양가정 유형	현재 부연령	현재 모연령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모직업	월평균 수입
1	여	8세	6개월	유자녀 입양	47	46	대졸	대졸	전문직	주부	800만원
2	여	9세	4년6개월	유자녀 입양	54	53	대졸	대졸	사무직	사무직	600만원
3	남	8세	36개월	유자녀 입양	54	52	대학원	대학원	목사	전도사	200만원
4	여	8세	24개월	유자녀 입양	53	51	고졸	고졸	기술직	주부	200만원
5	여	7세	20개월	유자녀 입양	47	45	대졸	대졸	전문직	전문직	500만원
6	여	7세	5개월	유자녀 입양	49	47	대졸	대졸	자영업	교직	400만원
7	여	7세	12개월	유자녀 입양	47	45	대졸	대졸	전문직	주부	500만원
8	남	9세	6개월	불입양 가정	49	46	대졸	고졸	자영업	주부	400만원

에 대한 평정은 1점에서 7점까지이며 각 점수마다 특정 행동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술평정 척도이고, 높은 평정점수(6 또는 7)는 그 항목에 참여정도가 높은 경우를 기술하며 낮은 평정 점수(1 또는 2)는 그 항목에 참여 정도가 낮은 경우를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자간 일치도는 각 항목별로 Pearson 상관계수로 산출한 결과 .76~1.0이었으며 평균 일치도는 .93이었다.

3) 어머니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Schaefer의 양육태도에 근거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를 사용하였다. 양육태도의 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 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애정차원, 자율차원, 성취차원, 합리차원, 4개 영역에 각각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각 하위차원별 신뢰도 계수는 애정차원의 Cronbach' α 가 .71, 자율차원이 .87, 성취차원이 .82, 합리차원이 .59이었다.

4)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 부모용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 문제행동 증후군을 측정하는 척도 119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2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 각 하위범주 중 0점으로 평정된 성문제, 정서불안성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범주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사회성 .83, 학업수행 .85, 위축 .88, 신체증상 .44, 우울불안 .63, 사회적미성숙 .26, 사고문제 .55, 주의집중 .51, 비행 .62, 공격성 .47이었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시작 전 각 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초기 면접과 사전 발달측정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1주 후 같은 도구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고 매회 70~80분 정도를 소요되었다. 부모-자녀 애착 전문가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그리고 본 프로그램에 대해 훈련 받은 보조 진행자들이 아동용 정서적 중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매 회 지난 시간의 과제 점검으로 시작하여 지난 시간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이번 주의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항상 어머니가 스스로 고민하도록 만들고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되, 직접적인 해결방법이나 제안, 충고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즉, 진행자는 부모를 도와주는 사람임을 명시하고 부모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한 보조 진행자는 아동학 전공자로서 아동용 정서적 중재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훈련

〈표 2〉 부모-자녀 애착증진 프로그램

회수	부모-자녀 관계 증진	부모 양육 기술증진	아동의 정서적 중재
			동화를 이용한 프로그램
1	자녀 이해하기	소개하기 자녀의 놀이에 동참하기	미운아기오리 - 분노/증오
2	감정 공감하기	자녀의 거울 되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분노/증오
3	자녀 모습 그대로 수용하기	자녀에게 자기 통제기술 알려주기-명상하기	라퐁쥬 - 감정 숨기기
4	훈육기술(한계 설정)	부모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과 즐거운 일 계획하기	천도복숭아 - 성실/ 희망
5	부모로서 권위 회복하기	자녀에게 음식, 돈 문제에 순종하도록 지도하기	백설공주 - 성실감 극복
6	부모로서 효능감 경험하기	자녀와 함께 "웃음"만들기(1)	꿀벌 마야의 모험 - 용기/ 도움요청
7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 도와주기	자녀와 함께 "웃음"만들기(2)	소공녀 - 극복/ 희망
8	자녀 격려하기(1)	자녀의 생활이 안정되게 정리해 주기	반쪽이 - 분노의 승화
9	자녀 격려하기(1)	자녀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도록 안내하기	키다리아저씨 - 꿈/ 희망
10	수료식: 부모-자녀 서약서 교환/부모-자녀 사랑의 편지 교환		

을 받은 후, 1명의 보조 진행자가 2~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총 10회의 부모-자녀 애착증진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결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사전사후 평균의 차이와 비모수 통계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하위 범주별로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의사소통이 36.00에서 40.00($Z = -1.78, p < .05$)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즉, 아동은 애착증진 프로그램 이전 보다 이후에 어머니와 좀 더 의사소통이 원활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신뢰감의 평균도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정한 과제를 제시한 후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질을 애착증진 프로그램 전과 후의 수준 차이와 비모수 통계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시 어머니 행동 특성 중에서 '정서적 지지($Z = -2.57, p < .05$)', '아동의 자율성 존중($Z = -2.56, p < .05$)', '한계설정($Z = -2.59, p < .05$)', '과제 지시의 적절성($Z = -2.55, p < .05$)', '아동에 대한 확신($Z = -2.59, p < .05$)'은 증가되었고, '아동에 대한 적개심($Z = -2.41, p < .05$)'은 감소되었다. 즉,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시 어머니는 애착 프로그램 전 보다 후에 아동의 정서를 지지하고 아동을 잘 격려하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시 아동 행동 특성 중에서는 '과제수행 시 인내력($Z = -2.38, p < .05$)', '과제에 대한 열정($Z = -2.38, p < .05$)', '어머니 지시에 대한 순응성($Z = -2.56, p < .05$)', '과제수행 시 긍정성($Z = -2.64, p < .05$)', '어머니와 공유하는 긍정정서($Z = -2.41, p < .05$)'는 증가되었고, '어머니 도움에 대한 의존성($Z = -2.05, p < .05$)', '어머니에 대한 회피($Z = -2.39, p < .05$)'는 감소되었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 양육태도의 사전 사후 차이와 비모수 통계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어머니 양육태도 중 자율성 차원은 11.62에서 13.25로($Z = -2.23, p < .05$)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어머니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영역

이 모두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3. 아동의 문제행동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 차이와 비모수 통계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9>, <표 10>과 같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문제행동 중 사회성 문제행동은 46.13에서 19.5로($Z = -2.39, p < .05$)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그 외의 문제행동 하위범주들도 모두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상실의 경험으로 인해 애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연장 입양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애착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장입양 아동과 부모 대상으로 좀 더 효과적인 애착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애착증진 프로그램과 차별화되게 아동 대상 중재 프로그램, 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양육기술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애착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수준,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문제행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애착증진 프로그램 실시 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하위 범주 중 의사소통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또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경우 아동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자율성을 존중하고 한계설정을 적절히 하며 과제에 대한 지시를 적절히 하며 아동에 대한 확신을 보이는 행동 수준이 높아졌다. 반면에 아동에 대해 적개심을 나타내는 행동은 줄어들었다.

즉, 프로그램 실시 후에 어머니와 자녀의 애착 수준에서도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행동과 태도가 모두 긍정적이고 아동에게 적절한 행동 수준이 높아졌다. 애착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데 근거하여 볼 때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분리불안장애 아동의 어머니와 아동의 치료 놀이 프로그램이 어머니가 아동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을 수용해도 반영적 의사소통을 하는 부모의 공감능력을 증가시켰고(김양순, 2002; 장미경, 1998; Coastas & Landreth, 1999), 정서행동 문제아동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훈련이 어머니가 언어적, 신체적 애정 표현이 더 많아졌다는

〈표 3〉 아동이 지각한 모에 대한 애착의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		사후	
	M(SD)		M(SD)	
모에 대한 아동의 애착	신뢰감	42.63(3.25)	45.25(3.24)	
	의사소통	36.00(4.38)	40.00(3.29)	
	소외감	20.00(1.94)	20.80(3.77)	

〈표 4〉 아동이 지각한 모에 대한 애착의 Wilcoxon 검증결과

구분	-순위		+순위		동률	Z	
	평균순위	사례수	평균순위	사례수			
모에 대한 아동의 애착	신뢰감	1.75(3.50)	2 ^a	4.90(24.50)	5 ^b	1 ^c	-1.78
	의사소통	.00(.00)	0 ^d	3.50(21.00)	6 ^e	2 ^f	-2.21*
	소외감	4.25(8.50)	2 ^g	2.17(6.50)	3 ^h	3 ⁱ	-2.27

* $p < .05$

〈표 5〉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		사후	
	M(SD)		M(SD)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특성	정서적지지	3.8(1.32)	6.4(.84)	
	아동자율성존중	3.2(1.03)	6.2(.63)	
	한계설정	2.8(1.03)	5.6(1.07)	
	아동에 대한 적개심	3.8(1.87)	1.5(.85)	
	과제지시적절성	3.1(.74)	5.6(1.26)	
	아동에 대한 확신	3.1(.99)	5.8(1.23)	
	과제 수행 시 인내력	4.9(.99)	6.8(.42)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시 아동 행동특성	과제에 대한열정	4.5(1.08)	6.9(.32)	
	어머니 지시에 대한 순응성	3.3(1.25)	6.4(.69)	
	과제수행 시 긍정성	3.8(.63)	6.4(.69)	
	어머니 도움에 대한 의존성	4.1(2.13)	2.8(1.48)	
	어머니와 공유하는 긍정정서	3.4(1.26)	5.6(1.58)	
	어머니에 대한 회피	3.5(1.08)	1.5(1.27)	

〈표 6〉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Wilcoxon 검증결과

구분	-순위		+순위		동률	Z	
	평균순위	사례수	평균순위	사례수			
어머니 -아동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특성	정서적지지	.00(.00)	0 ^a	4.50(36.00)	8 ^b	0 ^c	-2.57*
	아동자율성존중	.00(.00)	0 ^d	4.50(36.00)	8 ^e	0 ^f	-2.56*
	한계설정	.00(.00)	3 ^g	4.50(36.00)	8 ^h	0 ⁱ	-2.59*
	아동에 대한 적개심	4.00(28.00)	7 ^j	.00(.00)	0 ^k	1 ^l	-2.41*
	과제지시적절성	.00(.00)	0 ^m	4.00(28.00)	8 ⁿ	0 ^o	-2.55*
	아동에 대한 확신	.00(.00)	0 ^p	4.50(36.00)	7 ^q	1 ^r	-2.59*
	과제 수행 시 인내력	.00(.00)	0 ^s	4.00(28.00)	7 ^t	1 ^u	-2.38*
어머니 -아동 상호작용시 아동 행동특성	과제에 대한열정	.00(.00)	0 ^s	4.00(28.00)	7 ^t	1 ^u	-2.38*
	어머니 지시에 대한 순응성	.00(.00)	0 ^v	4.50(36.00)	8 ^z	0 ^{aa}	-2.56*
	과제수행 시 긍정성	.00(.00)	0 ^{bb}	4.50(36.00)	8 ^{cc}	0 ^{dd}	-2.64*
	어머니 도움에 대한 의존성	4.33(26.00)	6 ^{ee}	2.00(2.00)	1 ^{ff}	1 ^{gg}	-2.05*
	어머니와 공유하는 긍정정서	.00(.00)	0 ^{hh}	4.00(28.00)	7 ⁱⁱ	1 ^{jj}	-2.41*
	어머니에 대한 회피	4.00(28.00)	7 ^{kk}	.00(.00)	0 ^{ll}	1 ^{mm}	-2.39*

* $p < .05$

〈표 7〉 어머니 양육태도의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		사후	
	M(SD)		M(SD)	
어머니 양육태도	애정-적대	14.25(2.60)	14.25(2.05)	
	자율-통제	11.62(1.84)	13.25(1.67)	
	성취-비성취	12.12(.99)	12.50(1.19)	
	합리-비합리	14.37(1.92)	15.12(2.23)	

〈표 8〉 어머니 양육태도의 Wilcoxon 검증결과

구분	-순위		+순위		동률	Z	
	평균순위	사례수	평균순위	사례수			
어머니 양육태도	애정-적대	3.75(15.00)	4 ^a	4.33(13.00)	3 ^b	1 ^c	-.17
	자율-통제	.00(0.00)	0 ^d	3.50(21.00)	6 ^e	2 ^f	-2.23*
	성취-비성취	5.00(5.00)	1 ^g	2.50(10.00)	4 ^h	3 ⁱ	-.68
	합리-비합리	3.00(6.00)	2 ^j	3.75(15.00)	4 ^k	2 ^l	-.95

* $p < .05$

〈표 9〉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 문제행동의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		사후	
	M(SD)		M(SD)	
아동 문제행동	사회성	46.13(13.34)	19.50(.93)	
	학업수행	20.13(1.55)	19.75(1.39)	
	위축	55.38(10.46)	52.13(9.09)	
	신체증상	51.25(6.11)	48.25(5.44)	
	우울/불안	51.50(12.64)	45.87(10.26)	
	사회적 미성숙	49.75(14.89)	44.12(8.20)	
	사고문제	52.37(7.31)	49.50(6.93)	
	주의집중	52.13(6.11)	50.75(9.49)	
	비행	55.63(9.78)	50.00(8.09)	
	공격성	53.63(9.01)	51.37(13.13)	
	성문제	0(0)	0(0)	
	정서불안	0(0)	0(0)	

〈표 10〉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 문제행동의 Wilcoxon 검증결과

구분	-순위		+순위		동률	Z	
	평균순위	사례수	평균순위	사례수			
아동 문제행동	사회성	4.00(28.00)	7 ^a	.00(0.00)	0 ^b	1 ^c	-2.39*
	학업수행	1.00(1.00)	1 ^d	.00(0.00)	0 ^e	7 ^f	-1.00
	위축	5.33(16.00)	3 ^g	3.00(12.00)	4 ^h	1 ⁱ	-.34
	신체증상	2.88(11.50)	4 ^j	3.50(3.50)	1 ^k	3 ^l	-1.09
	우울/불안	4.25(17.00)	4 ^m	2.00(4.00)	2 ⁿ	2 ^o	-1.36
	사회적미성숙	3.33(10.00)	3 ^p	2.50(5.00)	2 ^q	3 ^r	-.67
	사고문제	3.50(7.00)	2 ^s	1.50(3.00)	2 ^t	4 ^u	-.73
	주의집중	3.83(11.50)	2 ^v	1.50(3.00)	2 ^t	4 ^u	-.21
	비행	3.40(17.00)	5 ^y	4.00(4.00)	1 ^z	2 ^{aaa}	-1.3
	공격성	4.33(13.00)	3 ^{bb}	2.67(8.00)	3 ^{cc}	2 ^{dd}	-.52

* $p < .05$

(서귀남, 전중국, 2003)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의 상호작용에서는 보편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보였다. 아동의 경우 과제 수행에 대한 인내력과 열정, 어머니 지시에 대한 순응성, 과제 수행 시 긍정성, 어머니와 긍정적인 정서 공유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어머니 도움에 대한 의존성과 어머니를 회피하는 행동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정서행동 문제 아동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훈련 후 아동이 어머니의 지시와 요구에 잘 순응하고 어머니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였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되었다는 결과(서귀남, 전중국, 2003)와 유사한 결과이다.

애착 형성의 기초가 되는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을 직접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은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동도 부모에게 적절히 순응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키워 부모-자녀 관계를 호혜적이고 공감적인 관계로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호혜적이고 즐거운 관계를 맺는 아동의 능력은 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고, 이러한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아동의 부정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착에서 의사소통 영역이 다소 증가한 것을 의미 있게 볼 수 있다. 아동의 내적 실행 모델이 변화되어 애착의 질이 변화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8~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됨(Hughes, 1999)을 가정해 볼 때 10주 동안 이루어진 본 프로그램에서 긍정적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좀 더 장기간 진행한다면 긍정적 변화가 좀 더 명확히 보여지리라 가정한다.

둘째, 본 연구 대상 아동은 프로그램 후에 문제행동 중 사회성 문제가 감소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율 차원이 향상되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녀의 치료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모가 자녀와 일대일 놀이를 하면서 자녀에게 민감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양육 기술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김양순, 2002; 백지은, 이정숙, 2009; 장미경, 1998; Coastas & Landreth, 1999)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애착증진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증대하는 동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발산하도록 하였고, 어머니와 아동의 놀이를 소개하고 가정에서 일대일 놀이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가 초기 상실로 인해 애착에 문제가 있는 연장 입양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애착에 손상이 있는 아동이 스스로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 기술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영향으로 인해 비록 10주 동안 짧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사회성 문제가 감소되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자율차원이 향상되었다. 실제로 애착증진 프로그램 후 참여대상이 된 입양 어머니들은 연장입양 아동의 문제행동과 이에 대한 대처로 힘들어하였는데 프로그램 후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가 안정되고 어머니 스스로도 아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초기 손상으로 인해 애착에 문제가 있는 아동 특성에 적절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연장 입양 아동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한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장입양 가정의 부모-아동 애착증진 프로그램은 초기 상실로 인해 애착에 문제가 있는 아동의 특성에 근거하여 아동의 내적 실행 모델을 변화하기 위해 어머니-아동 관계 증진, 어머니의 양육 기술 증진,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 증대가 동시에 지원되면서 부모-자녀 관계 향상 등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어머니가 애착에 문제가 있는 아동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지원하면서 이를 토대로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양육 기술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실행한 후 그 후기를 나누며 다시 실제 생활에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경험이 아동의 문제행동만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보다 더 깊이 있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기 상실로 인해 애착에 손상이 있는 연장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아동 뿐 아니라 초기 상실을 경험한 아동의 특성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으로 겪는 위탁 부모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애착에 손상이 있는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도 확장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추후 애착에 손상이 있는 아동과 부모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확장할 것이며, 연장입양 아동 중에서도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장입양 아동과 부모의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중요한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참여대상을 구하기가 어려워 제한된 부모-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연구라는 한계이다. 연장입양 가족이 대부분 공개 입양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가족이 적었고 참여의사를 밝힌 가족이 10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물리적 이유 등으로 극히 제한된 연장입양 가족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고 그 효과도 긍정적이라 판단되지만, 대상을 좀

더 확장시키고 비교집단이나 통제집단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효과연구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둘째, 이 연구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좀 더 장기간의 추후 효과 연구를 실시하여 효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현재도 기타 지역에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보다 타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본 프로그램을 보편화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혜정(2005). 연장이 입양 부모의 자녀문제 지각과 적응촉진 요소 및 장애요소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입양홍보회 연장이 입양가족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성(2004).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아동복지학**, 17, 7-48.
- 김양순(2002).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자녀 놀이 치료 사례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 5(2), 3-14.
- 백지은, 이정숙(2009). 부모자녀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의 공감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30(4), 99-116.
- 서귀남, 전종국(2003).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훈련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7(1), 73-89.
- 성영혜(2002). **치료놀이 II - 집단 TP 활동집**. 서울: 형설출판사.
- 신혜원(2004). 3-4세 유아의 애착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15.
- 윤소영(2001).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1996). 애착장애 아동의 특성과 부모-아동 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 나유미(1999). 유아의 애착 및 유아-어머니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32.
- 장미경(1998). 아동중심놀이치료 기법을 이용한 부모자녀관계증진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우경(2002). 영아의 애착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 정순희, 황현주(2009).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정익중, 권지성, 민성혜, 신혜원(2010). 연장이입양 가족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 55-84.
- Atkinson, L.(1997).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From laboratory to clinic(pp. 3-16). In L. Atkinson & K. J. Zucker(Eds.),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NY: The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construct revisited.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89-111). New York: Guilford Press.
- Coastas, M., & Landreth, G.(1999). Filial therapy with nonoffending parents of children who have been sexually abused.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8(1), 43-66.
- Egeland, B., & Farber, E. A.(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Erickson, M., England, B., & Sroufe, L. A.(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in a high-risk sample(pp.147-166)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Hughes, D. H.(1999). Adopting children with attachment problems. *Child Welfare*, 78(5), 541-560.
- Lieberman, A. F.(1997). Toddler's internalization of maternal attributions as a factor in quality of attachment(pp. 277-291). In L. Atkinson & K. J. Zucker(Eds.),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arvin, R. S., Cooper, G., Hoffman, K., & Powell, B. (2002). The circle of security project: Attachment-based intervention with caregiver-pre-school child dyad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 107-124.
- Shields, A., Ryan, R. M., & Cicchetti, D.(2001).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caregivers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predictors of maltreated children's rejection by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7(3), 321-337.

- Thomas, N. L.(2000). Parenting children with attachment disorders(pp. 67-111). In T. M Levy(Ed.), *Handbook of attachment intervention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Tommie, J., & Pauline, H.(2001).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Boston: Allyn and Bacon.

Zimmermann, P.(1999). Structure and functions of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their role for emotion regulation.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3), 291-306.

접 수 일 : 2010년 12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월 4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월 21일